

2023년 인천아트플랫폼 <14기 입주 예술가 공모> 최종 심의 결과 안내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인천아트플랫폼 <14기 입주 예술가 공모>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28.

□ 최종 선정자 명단(부문별)

1.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예술가

가. 시각예술부문(9개월/2023년 5월 ~ 2024년 1월)

| - 예술가 | | | |
|-------|----------------|-----|---------------|
| 순번 | 접수번호 | 성명 | 연락처 |
| 1 | 14202302240005 | 정OO | 010-****-6964 |
| 2 | 14202302280019 | 현OO | 010-****-2875 |
| 3 | 14202303020036 | 한OO | 010-****-7084 |
| 4 | 14202303030044 | 최OO | 010-****-8610 |
| 5 | 14202303050055 | 김OO | 010-****-0415 |
| 6 | 14202303070070 | 임OO | 010-****-0819 |
| 7 | 14202303070075 | 배OO | 010-****-7809 |
| 8 | 14202303070079 | 윤OO | 010-****-9621 |
| 9 | 14202303090120 | 이OO | 010-****-1527 |
| 10 | 14202303100147 | 윤OO | 010-****-9696 |
| 11 | 14202303100186 | 백OO | 010-****-2782 |
| 12 | 14202303100287 | 박OO | 010-****-9876 |
| 13 | 14202303100308 | 황OO | 010-****-1731 |
| - 연구자 | | | |
| 순번 | 접수번호 | 성명 | 연락처 |
| 1 | 14202303100165 | 유OO | 010-****-1863 |

나. 공연예술 부문(9개월/2023년 5월 ~ 2024년 1월)

| 순번 | 접수번호 | 성명 | 연락처 |
|----|----------------|-----|---------------|
| 1 | 14202303030040 | 오OO | 010-****-4650 |
| 2 | 14202303090133 | 임OO | 010-****-4692 |

☐ 예비 선정자 명단

1.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예술가

가. 시각예술부문

| 구분 | 접수번호 | 성명 |
|-----|----------------|-----|
| 차순1 | 14202303100248 | 정OO |
| 차순2 | 14202303020027 | 박OO |
| 차순3 | 14202303100190 | 전OO |
| 차순4 | 14202303020038 | 박OO |
| 차순5 | 14202303100202 | 정OO |
| 차순6 | 14202303100255 | 최OO |
| 차순7 | 14202303100224 | 권OO |

나. 공연예술부문

| 구분 | 접수번호 | 성명 |
|-----|----------------|-----|
| 차순1 | 14202303100201 | 허OO |
| 차순2 | 14202303100298 | 김OO |

☐ 입주 절차 및 오리엔테이션

- 입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합니다.
- 입실기간 : 2023년 5월 22일(월) ~ 5월 26일(금) 중
- 입주 오리엔테이션 : **2023년 5월 11일(목), 14:00,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다목적실**
 -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선정된 예술가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계약서 작성, 입주 관련 안내, 스튜디오 배정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업실 배정은 오리엔테이션 전에 이메일(4/28/금 ~ 5/3/수) 안내에 따라 희망 신청 1순위를 받으며, 중복 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안내합니다.
 - 기타사항 : 오리엔테이션 진행 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요
 - ※ 입주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본인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합격자 별도 안내 예정)
 - *그룹의 경우, 대표(신청자)는 모두 지참, 팀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만 제출

☐ 별첨

2023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예술가 공모 심의평

○ [1차]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각예술부문

2023년 인천아트플랫폼 1차 서류 심의에서는 다섯 명의 심의위원 점수와 평가를 합산하여 토론을 거친 후 최고점 순서로 28명의 예술가 및 연구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회화나 조각, 설치 같은 전통적 매체의 지원자뿐 아니라 뉴미디어나 영상, 사운드, 다장르 실험하는 지원자의 비중이 예년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신진 작가부터 창작경력이 풍부한 중견 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가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심사 기준 내에서 다층적인 내용들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심의에 있어서 동시대 미술계의 편중된 경향성에서 벗어나 작가로서의 태도를 드러내는 창작자들에게 주목했으며, 현실과 일상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상징적 언어가 발화시키지 못하는 재현의 빈틈을 찾아 균열을 내고, 닫히고 고정된 의미를 유연하게 확장하고자 하는 자신만의 예술 언어와 실천적 방식이 확고한 예술가 및 연구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미술계의 '유행'이나 '주류'에 속하는 소재 또는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루고자 하는 주제 및 문제의식과 형식적 실험의 링크(연결성), 밸런스(균형감)를 고려하는 동시에 활동 계획의 구체성을 살피며 향후 활동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자의 입주 후 계획과 과거의 포트폴리오를 교차 점검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모색해 온 작가들의 활동에 기반하여 입주 및 지원의 필요성과 창작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한정된 심사자료 내에서 가능하면 창작계획뿐만 아니라 활동 내역을 충실하게 파악하고자 자료 검토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또한, 타 레지던시와 차별화될 수 있는 인천 지역과 장소에 기반해 작업 및 연구의 주제를 밀도 있게 확장하고, 인천아트플랫폼이 중요한 거점 레지던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작업 세계를 확장하고,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모색할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하는 작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간혹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발견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경쟁(competition)은 제도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낸 것일 뿐 예술은 항상 그것을 넘어서고 가로를 수박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창작자분이 그간 지속하고 발전시켜 온 작업 세계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는 말을 전합니다. 선정의 여부를 떠나 모든 작가분의 노력과 자기개발에 박수를 드립니다.

김성우(프라이머리 프랙티스 디렉터)

김윤경(독립 큐레이터, 前 아뜰리에 에르메스 아티스틱 디렉터)

배명지(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안소연(미술평론가)

윤율리(일민미술관 학예팀장)

○ [최종]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각예술부문

2023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 예술가 공모 2차 인터뷰 심의는 당해연도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지침이 완화에 따라 2년여 만에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레지던시 입주 예술가 및 연구자 부문에 28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가운데 입주 예술가 1명이 심사를 포기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의 인터뷰와 서류로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작업의 특성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작업이나 입주 계획을 경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 레지던시 2차 인터뷰 심의에서는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다층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창작자분들의 기획안이 제안되었고 전반적으로 지원자들의 진지한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매체적으로는 사운드, 퍼포먼스 지원자를 포함하여 평면, 영상, 테크놀로지 기반의 작업 등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주제 면에서는 인천과 관련된 주제를 포함한 환경, 젠더, 노동 등 다양한 내용의 작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와 이데올로기로부터 환경에 이르는 동시대적인 주요 안건들에 대한 태도를 제시함에 있어서 창작자로서 갖는 예술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으로부터 작품의 방법론을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주목되었고,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주제 의식을 예술적, 미학적, 형식적 고민과 연동하는 분들의 깊은 고민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심의 기준으로는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작업 계획이 분명하고, 작업에 있어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자 하는 발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자신의 매체, 혹은 조형 실험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작가들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각자의 독창적인 작가 세계가 탄탄하게 구축된 분들의 사유를 접하게 되어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으나, 창작 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실험적 접근이 구체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기획안에 주목하고자 했으며, 주제나 메시지에 무게를 두면서도 창작 행위의 예술적 가치를 더불어 고민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레지던시의 취지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작업 계획과 작업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레지던시의 경험이 향후 작가의 작업 활동 전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동시대 유행하는 또는 널리 수용되는 주제, 담론, 창작 방향, 조형 방법론 및 기법 등이 여러 지원자에게 동시적으로 보이거나, 다소 짧은 경력과 레지던시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전망이 불분명한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이는 활동 경력 및 장기적인 작업 주제의 부재로 인한 경우로 보이며, 작가의 경험과 생각에서 기반하는 독창적인 시각의 측면에서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인천이라는 낯선 환경을 새로운 실험 환경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작업을 제안하는 계획이 분명한 지원자들도 있었으나, 몇몇 작가들의 경우, 인천에 관한 작업이 정보 차원의 경험에 한정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지역적 전형을 생산하거나 확인하는 것에 머무는 평이한 계획들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여성 지원자의 경우, 인천의 여성운동, 이주 여성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작가적 상상력을 확장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심사에 있어 주요 레지던시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기관을 바꾸어 가며 입주하게 되는 상황에 관한 비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주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역량 있는 지원자 모두가 선발되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작가와 연구자들이 선정된 만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인천 미술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선정된 입주 예술가들의 다양한 사유와 태도를 통해 오늘날 국내 미술계의 심도와 확장성을 나타내는 별자리를 만들 뿐 아니라, 국제성을 띠는 미술 생태계로 활성화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승완(부산현대미술관 관장)

서현석(작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심상용(서울대학교 조소학과 교수, 미술평론가)

우혜수(독립 큐레이터, 前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부관장)

정현(인하대학교 교수, 미술평론가)

○ [1차 및 최종] 레지던시 프로그램 공연예술부문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의 시간이 큰 영감으로 다가오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하신 분들이 본 사업의 취지를 파악하여 공간으로부터의 영향과 영감을 자신만의 창작과정에 어떻게 녹이고 활용하고자 기획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공모에 음악, 무용, 연극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과 예술적 스타일을 갖춘 예술가 및 예술 단체가 다수 지원한 가운데, 저희 심의위원회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적은 건수(2건)을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하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인천아트플랫폼의 공간적 특징을 여러 시선과 각도로 접근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원하신 분들이 레지던시를 통해 어떤 결과물을 목표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가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위해 레지던시를 지원하게 된 계기, 예술적 비전, 그리고 결과물이 어떻게 관객과 만날 수 있을かを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아트플랫폼에 담긴 입체적인 시간성, 역사성, 효율성, 접속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작업을 통해 이를 드러내거나, 또는 인천아트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지원자에 많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또한, 장소적 활용성, 계획의 구체성, 실행 역량, 예술적 목표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들은 시각예술 분야보다 유목형 예술가가 많으며, 특정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주형 공간에 관한 필요와 관련하여 예술가와 공간 사이에 다리를 놓음으로써 예술의 새로운 진로와 탐색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인천아트플랫폼에 정주하여 새로운 예술적 드라마와 효과 창출에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현민(월간 객석 편집장, 음악평론가)

심정민(한국춤평론가회 회장, 무용평론가)

엄현희(공연평론가)

*심의위원명은 가나다순입니다.